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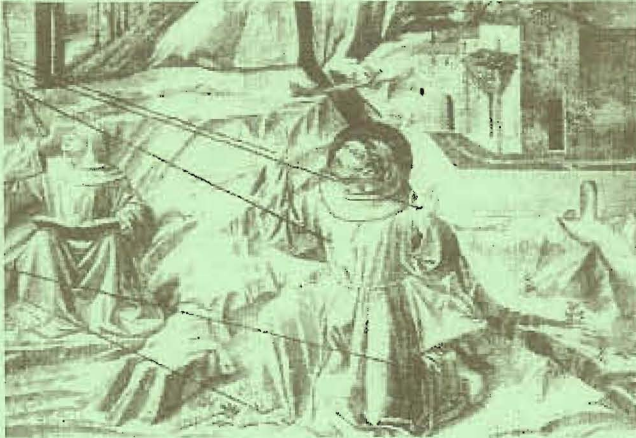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31권 34호(가해) 2011.7.17

[묵상]



오상을 받으시는 성 프란치스코<15세기, 베노초 고출러, 프레스코, 몬테팜코 중앙성당, 몬테팜코, 이탈리아>.

이 세상은 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악마는 가라지를 덧뿌려 놓으니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걷어내길 원하나
주인은 수확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밀까지 함께 뽑을까봐 그렇습니다.
하늘 나라의 자녀들인 밀과
악한 자의 자녀들인 가라지는
세상 종말에 뚜렷이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밀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우리의 생애를 돌아다보면
밀일 때도 가라지일 때도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밀과 가라지를 오갑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지일 때마다
처단하기 위해 기다리는 심판자라면
누구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이되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해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매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올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미리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고광민, 권순봉 요안나
	(생)박규리 글로리아, 김선만 제이슨,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오진 베드로, 소효균 요셉, 소수연 안나, 박송희, 이병호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장영미 데레사, 엄은섭 도로테오
	(생)조경림 요셉, 홍광선 요셉, 최금옥 딸찌나, 신대철 알베르토, 이영희 카타리나, 이재정 사도요한, 임크리스 벨라도, 오세호 레이몬드,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2,13.16-19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당신은 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 다.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나이다.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예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이 탄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독서 마태오(Matthew) 13,24-43<또는 13,24-3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3,1-23<또는 13,1-9>

영성체송 당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3	238	208
봉헌	255	270	269
성체	하느님 그리고 나	279	289
파견	You are Holy	220	238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이 방법들의 효과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편견을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혼인한 부부, 보건의 관계자, 사회활동가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개인적인 희생과 대개는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적 노력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 보급하며, 아울러 그러한 방법에 전제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증진하고 교육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분들에게 교회는 감사를 드린다.

교육활동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숙고를 피할 수 없다. 고통과 죽음은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며, 그것들을 숨기거나 또는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가혹한 실제 전체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고받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체험한다면, 아픔과 고통도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기러한 면에서, 본인은 매년 세계 병자의 날을 기념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겪는 고통의 봉헌은 구원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구속의 핵심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 그 자체는 단지 희망이 없는 사건에 불과하다. 죽음은 영원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체험이다.

98). 한마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문화적 변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할 용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개인, 가정, 사회, 국제적 차원에서, 올바른 가치 기준의 토대 위에 실제적인 선택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올바른 가치 기준이란 소유에 대한 존재의 우월성,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다. 이러한 채신된 생활방식에는 타인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타인들에 대한 거부에서 수용으로 옮겨가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타인들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경쟁 상대들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문화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가정과 아울러, 교사와 교육자들은 특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참된 자유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생명에 대한 새롭고 진정한 이상을 스스로 간직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들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더욱더 모든 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려면, 교사와 교육자들의 역할이 크다. (◆계속)

기다리는 마음

하느님은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내리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밭에 자라는 밀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겼고 똑같은 햇빛과 비를 먹지만 쓸모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 밭에 가라지가 생겨도 안타까워하며 조급하게 뽑아버리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위,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을 무척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악인들을 응징하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악인을 치다가 선한 사람이 다칠까 조심하는 분이시며, 악인들의 회개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도 어쩌면 선하다고 착각하는 악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악인들의 멸망만을 기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기를 더 퍼도록 만드는데 힘쓰고, 회개를 위해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과 선한 일이 많아지면 악인들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농업국이었던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업이 흥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서비스업은 대체로, 노력한 것 이상의 소득을 바라고 쾌락위주의 삶을 지향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심지어 '대박 나세요!'라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 우리 인생의 진실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농업은 기다림과 인내, 정직과 소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밭에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때로는 피약별에, 때로는 진흙탕 속에 밭을



돌보는 농부의 마음 안에 인생의 진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도 환난과

괴로움, 굶주림과 가난, 고통과 좌절 등이 없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쾌락이 실현된 나라가 아니라 고통이 소화된 나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흙에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을 모두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아파트 속에 갇혀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흙냄새 그윽한 시골 뚝방 길을 맨발로 걷고 싶습니다. 뚝방 따라 녹색물결 치는 드넓은 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망막에 초록물이 들도록 한없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7월20일(수) 오후 7시 30분 저녁미사중
- 대부, 대모님과 함께 참석해주시요.

◆ 주일학교 S.O.E.L.밴드 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22일(금) 오후 7시 성당
- 참석대상 :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들과 어르신 신자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시요.
-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 '야의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의 십자가의길' 조성 관련, 제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된 후, 이제 뜻있는 개인 봉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본당 신부님

◆ 14처 기금마련 각종 행사 안내... 적극 동참해주시요!

- 성모회 : 된장, 고추장 새우젓, 깍두기 판매(7월31일 주일) 김치 판매(9월25일 주일, 빈병 수거합니다.)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310)738-4788
- 대건회 : 거라지 세일(8월14일 주일) 물품 도네이션 환영. 8월7일까지 성당 주방옆 수거함 ☎ 대건회장 송호창 요셉(323)899-8758

◆ 어린이 평일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요일미사와 목요일미사(저녁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어린이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424)903-6637, 본당 수녀님

◆ 첫영성체 / 신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6월5일 첫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움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욱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하면 \$20입니다.)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해원 아네스 ☎(310)780-0369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 한달간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7일(주일) : 토런스 동 1반(카레라이스 \$3)
- 7월24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소고기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원호 문충한 송영미 윤석구 이효세 정열모 최이원	권태만 김준호 민순선 오세원 이경용 임 순 주대중 황인중	김교복 김창규 박상준 오수인 이경태 장춘수 차병용 송마이클	김대우 김현숙 남명자 박종선 박창민 유선식 이민상 이일길 정연영 최수현 최의수	김병학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오영섭 이명자 정상문 최이원	김원호 민순선 유선식 이민상 정열모 주대중	김준호 박창민 유희연 이효세
미사헌금 : \$2,821				합계 : \$4,400			
					성전헌금	합계 : \$3,180	
					감사헌금: 정열모		

공지사항

- ◆ 주일학교용 흑백(B/W) 프린터 기증 받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다 더 원활한 주일학교 행정업무들 위해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8월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신청마감됐습니다.)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출발 :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남가주 소식

- ◆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의 밤
● 일시 : 7월23(토) 오후 5시 미사후
제무보고와 작은 음악회, 저녁식사와 나눔의 시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천주교회(후원회장 김효근 신부)
● 문의 : 박글라라☎(213)327-8228
- ◆ 성모님 탄생축일 봉헌준비 위한 일일 피정
● 일시 : 7월23(토) 오후 6시
● 지도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주제 : 용서와 화해)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 문의 : ☎(818)571-8438
- ◆ 결혼 적령기 자녀들 부모들의 모임 '청실홍실'
● 일시 : 7월24(주일) 오후 6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 신청 : 정찬열 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후원 : 남가주 한인 중신부제회
- ◆ 가톨릭 문우회 회원모집
● 대상 : 문학을 사랑하는 교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지도 : 창작교실에서 무료지도를 통해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박시몬 (213)675-2059, 박안젤라 (213)675-2085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려주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성위"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연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목)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 반모임(토런스 팍) 7/3(주일) 오후 1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외 반모임 989-0366 7/24(주일) 낮 12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0(주일) 낮12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김용 스테파노 320-0855 7/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326-6982 7/14(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오태환 바오로 750-4051 7/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외 반모임(아이스하우스캐년) 7/17(주일) 오전 8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노 953-7903 7/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페데리다 384-3289	P.V.구역 합동 반모임 7/9(토) 오전 10시 라이언 팍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합동 반모임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회의	
----------	--

다음 주 단체 모임

새회기 첫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	----------

가시덤불 같은 이 손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열애에 빠졌다가 황홀한 행복감을 뚝뚝 뚝뚝 가슴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충만함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무한 그립습니다. 골고타 언덕을 올라 주님 무덤 성당을 막 들어서면 주님의 시신을 얹은 반듯한 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납작 엎드려 울먹였고 한량없는 시간이 흐르면서 갖가지 주님의 생애가 내 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중에도 유독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바르던 모습이 나를 숨가쁘게 떨게 하였습니다.

그 돌에 내 손이 닿으면서 오는 그 저릿한 전율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전적으로 가슴 안으로 몰밀져 들어오는 연애감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분 앞으로 다가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그분의 옷자락이거나 그림자라도 바라보고 싶은 절박한 그리움, 나의 모두를 바쳐 그분의 발에는 비싼 향유를 발라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는 가득 하여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선물이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의 발에 향유를 바르는 이천 년 전의 한 여인에 비해 내가 넘치게 쓰고 남는 것으로 주님의 얼굴에 바르려는 내 심사의 졸렬함을 먼저 지우느라 나는 그 순간에도 나와 싸웠습니다.

그곳 신부님이 주신 나르드의 향유를 그 돌에 내 눈물과 함께 진심으로 바르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소지었고 저는 떨었습니다.

고운 손도 아니고 가시덤불 같은 내 손으로 주님의 발을 만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오그라드는 듯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서 받은 상처로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못난 손으로 감히 주님의 발을 만지는 제가 부끄러웠지만 사랑하므로 더 높게 사랑하므로 당당히 가시덤불의 손으로 그 발에 향유를 바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여자로 세상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있으면 단순한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는지 마치 반병어리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서 사기조차 칠 수 없거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아예 말이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웠던 그 돌에 한참이나 꿇어 엎드려서 내 신앙생활의 휘어진 뼈를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여

러번 하였습니다. 계산부터 먼저 하는 신앙의 굵은 등을 펴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저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가시덤불의 손에도 꽃을 피우시는 신앙의 열매를 주님의 손으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이건 알아두세요.

주일미사 예물봉헌시간에 평신도는 예물을 봉헌하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예물봉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싶었는데 제생각이 맞는지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족의 모든 맏배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족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민수 3, 41)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행할 바와 사제의 몫을 분명히 밝혀 주셨지요. 레위인의 몫(민수 18, 21~24)과 레위인의 권리(신명 18, 1~8)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의 열 한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상속해 주지 않는 대신에 사제단인 레위 지파에게는 봉헌된 헌물(헌재의 현금)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창기 교회도 신자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사제가 하느님께 바치고 그 예물은 사제의 생계와 교회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사제와 수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레위인으로 봉헌하였으므로 하느님의 재산이 된 신분입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제나 수도자는 자신을 위해서 직업을 갖거나 스스로 생활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합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소유이기에 현금에서 자유롭습니다.

◆장재봉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기도하는 사람은 연민의 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숨어 있는 의미를 간파하며,
세상을 언제나 더 깊은 회개로 초대합니다.

- 헨리 나웬 -